

대행 스님

내 몸에서도 내가 벗어나야 나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하이오 주립 대학 선생님들, 또 지금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분들,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립대학에 계시는 교수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조용히 앉아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문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종교라 하면 타의에서 구하고 무슨 조주 선사의 화두니 무자 화두니 이러한 화두를 잡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했는데, 그것은 내 껍데기에다가 또 껍데기를 씌워 놓고 화두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똑같죠. 진리를 한 번 더 내다보세요. 내가 남의 말을 듣기 이전에 한번 내다보시라고요.

모든 상점이나 사람들, 자기 소임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들 모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상점에 가도 끼리끼리 모여 있고 금방에 가도 금방이기 때문에 금이 모여 있고 넝마전이기 때문에 넝마가 모여 있고 무쇠전이기 때문에 무쇠가 모여 있듯이, 갖은 각색으로 찰나찰나 바뀌면서 끼리끼리 모여 있는 인연법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찰나생활이라는 이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라는 걸 아셔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기로부터 세상이 생겼고 자기로부터 상대가 생겼고 자기로부터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자기 없으면 모든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로부터 자기를 먼저 믿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모든 오신통 재료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심안으로 보는 거, 과거를 아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줄 아는 거, 또 듣는 사이 없이 온 누리의 모두를 다 들을 수 있는 거, 이것을 바로 오신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성신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보려고도 안 하고 항상 남이 밥을 먹여 주지 않을까 해서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저 화두나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전의 부처님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이 되고 천체물리학으로서 또 과학으로서 공학으로서 천문학으로서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또 진리를 본다 하더라도 찰나의 생활이며 바로 우리가 평등 진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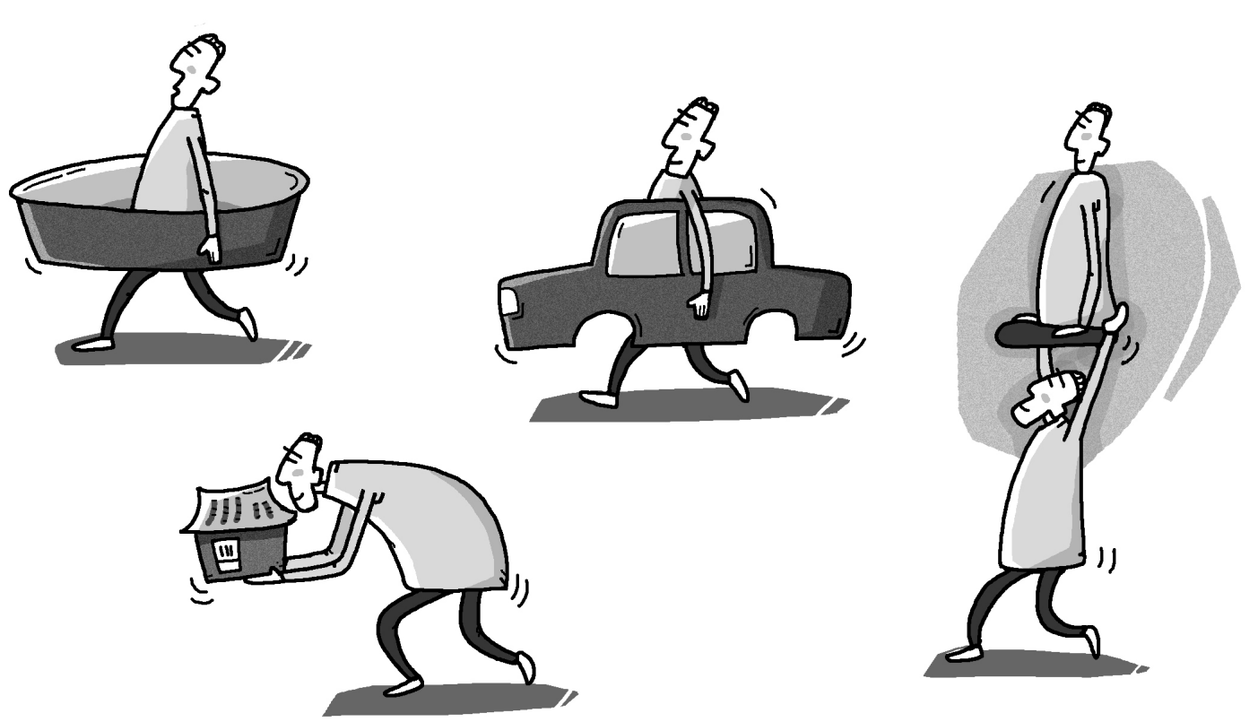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끄달려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것이 나올 리가 있나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학생이나 또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해 놓고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오늘 가져 봅시다. 어때요? 질문하실 거 없어요?

질문자1(남) 지금 조주 무자를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스님께 말씀드렸듯이 안양에 계실 때 제가 한번 찾아가서 조주 무자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제가 뉴욕에 와 가지고 『무』라든가 그런 책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 본 결과 모든 것은 한마음의 결과다, 한마음에 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지금 여기 걸어왔죠? 차 타고 와서 또 여기 걸어 들어왔죠?

질문자1(남) 예.

큰스님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들고 오셨습니까?

질문자1(남) 생각 없이 했습니다.

큰스님 생각 없이 했죠? 또 신발을 벗어 놓고 들어오실 때에 신발을 들고 오셨습니까, 신발을 '저거 내가 여기다 벗어 놓으면 안 되는데….'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걷기는 분명히 걷고 있는데 발자취는 끌어안고 다니는 게 없죠. 그러면 지금 남편이 됐을 때, 댁이 남편이죠? 그런데 자식이 와서 "아빠!" 그럴 때는 무엇이 됩니까?

질문자1(남) 아빠가 되겠죠.

큰스님 예. 그렇게 자꾸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거기에 조주 화두가 붙어야 하고 무자 화두가 붙어야 하고 꼬고 앉아 있어야 하고 이럽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서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먼 데 내다보려면 내다보고 또 생각나면 생각하고,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바로 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벌어진 거니까 댁이 화두며 세상 돌아가는 게 바로 참선 아닌가요?

찰나찰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또는 평등한 진리에서 우리가 그걸 탐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 몸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거기다가 남한테 화두를 받아 가지고 그거 끊어질까 봐 24시간 애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댁에서 가고 오는 것이 전부 고정된 게 있습니까? 보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듣는 게 고정된 게 있습니까? 만남이 고정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먹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을 금방 했다 저 생각 또 하게 되고 저 생각 금방 했다 이 생각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찰나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여여하다고.

그래서 저기 '본래 내 자성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네 구절을 써 놨죠. 불(佛)이라는 것은 핵과 같은 겁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데 중심자, 중심, 심봉과 같고요.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그 심봉에 의지하고 힘에 의지해서 기계가 돌아가는 그 자체를 볼 때 그 심봉이 꿰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차를 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도 그런 핵과 같은 심봉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거는 움죽거림이 없이도 아주 광대무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길 따라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걸 에너지라고 하죠. 에너지는 바로 핵을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움죽거리는 바람에 바로 물질인 나의 이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래 삼위일체가 구성돼 가지고 계합이 돼서 같이 길고 짧음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쪼그만 거 하나를 우리가 볼 때도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가 터지는 거죠.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 속에서 그 생명들이 수억 마리가 세포나 오장육부의 모든 소임을 맡아서 운행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움죽거릴 수가 없습니다. 속의 의식들이, 즉 마음들이 전부 한마음이 돼서 움죽거려 주지 않는다면 지금 죽은 송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과 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친 이 자체, 바로 그 속에서 악도 나오고 선도 나오고 가난도 나오고 안 되는 것도 나오고 아이 글쎄,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될 만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또 될 때는 또 되고. 이런 것이 다 이것을 한데 합쳐서 전자에 내가 한 거만치 인연을 가지고 나온 바로 인과입니다.

그러니 그 인과를 내 마음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을 만들려면 다 거기 놓아야 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한테서, 거기서 형성시킨 거고 나온 거니까 다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는 믿음과 더불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도요,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를 비롯해서 몸 하나가 나와요. 그럴 때 예전 말로는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니 20, 30이 당도해도 철이 없어서 부모의 생각을 못 했다는 얘기가 회심곡에 있듯이 말입니다.

그랬듯이 여러분이 모두 피를 받고 또는 살

☞ 22면으로 계속

